

도내 신설법인 증가속 생존율 '저조'

중기부,3분기·9월 신설법인 동향
9월 243개 작년동월비 15.2%↑
도·소매업 등 창업 열풍 여전
자본금5000만원 이하75%달해
국세청 '2016년 국세 통계 연보'
사업자69% 1031명 5년내 폐업

전북지역의 신설법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0개 중 7개는 5년 안에 폐업하는 등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이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3/4분기 및 9월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9월 신설법인은 24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2%나 증가했다.

특히 내수경기 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도내 신설법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도내 신설법인 수가 9월 들어 다시 큰 증가폭을 보이며 전북지역의 3/4분기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755개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200여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겨나는 등 도내 창업열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이는 도내 고용시장 전반에서 갈 곳을 잃은 구직자들의 창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

이 나온다.

업종별로 보면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소매업과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5000만원 이하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신설법인 대부분이 소규모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불황이 빚어낸 기형적인 창업 열풍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중기청은 도내 신설법인수가 이처럼 증가한 것에 대해 소규모 창업의 증가가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내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크고,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과 그 예산 규모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는게 전북중기청의 설명이

다. 이처럼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도내 창업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도내 신설법인의 생존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폐업한 법인사업자 1,493명 가운데 306명이 1년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한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모두 731명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전체 69%인 1031명은 5년을 채 못 넘기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정부와 도내 유관기관들은 창업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동시에 생존을 제고 등 질적인 부분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수기자·ssyang0117@

김창수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이달의 우수조합장상 수상 영예 상호존중 문화·경영성과 '모범'

전북농협은 2일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축산인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해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창수 조합장은 산농가 소득증대를 통해 축산인 및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소통과 공감 리더십을 바탕으로 임직원 간 상호존중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농·축산농가의 영농활동에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전사적으로 추진한 점은 모범이 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평가가 높다.

시상식에서 김창수 조합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가축 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축산환경에서 종사자의 재해 발생은 축산농가의 존폐를 결정할 위기에 처하게 함으로 재해예방은 필수"라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추진 등 축산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성조기자·fox2drink@



지난 2일 전북농협이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축산인의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해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 조합장'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

오징어·고등어 '고공행진'... 식탁물가 빨간불

물오징어 중품 1마리 4573원
작년동월대비 69.1%나 올라
고수온 현상 등 어획량 급감
수산물 가격 오름세 잇따라
주재료 판매 업계 등도 울상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오징어가 '귀하신 물'이 됐다.

더욱이 고등어, 쫄면 등 전반적인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따르면, 1일 기준 국내산 물오징어(중품) 한 마리의 평균 소매가격은 4573원이다.

이는 한 달 전 가격인 4182원에 비해 9.4%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2705원에 비해서는 무려 69.1% 올랐다. 평년 가격인 2573원에 비하면 77.8%로 더욱 오름세를 보였다.

오징어 주산지였던 동해안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오징어 가격이 급등한 것.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의 북상시기가 빨라지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설명이다.

오징어 가격이 오르면서, 오징어를 주재료로 판매하는 관련업계도 울상이다.

오징어 회를 판매하거나, 오징어 튀김을 팔고 있는 식당에서는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주 A 오징어 횡집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한 마리에 1만 원 가까이 올랐었다"며 "오징어 가격이 계속 오르지만, 무턱대고 판매가를 올릴 수는 없어 사이즈를 줄이는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징어 뿐 아니라 전체적인 수산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AT에 공시된 1일 기준 고등어(1마리/중품)의 가격은 2804원. 한 달 전 가격인 2650원에 비해 5.8% 올랐다. 고등어의 경우, 난류성 어

류이기 때문에 고수온 현상과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수입상 비중이 커진 것도 이유 중 하나.

이 외에도 같은 기간, 쫄면(1마리)은 3122원으로 한 달 전(3080원)에 비해 1.4%, 새우(10마리)는 5210원으로 한 달 전(5178원)에 비해 0.6% 소폭 올랐다.

주부 이 모(35·전주 효자동)씨는 "오징어는 너무 비싸서 살 엄두가 안 나고 전체적인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식탁위에 생선 울리가 겁이 날 정도"라며 "부담감 없이 사먹었던 생선도 이제 고민하고 구매하게 된다"고 전했다.

/박세린기자·iceblue@

"목장형 자연치즈 맛에 빠져볼까요"

농진청,11일 서울 왕십리역서
치즈 경연 출품작 전시·시식

농촌진흥청은 오는 11일 서울 왕십리역 비트플렉스(2층 비트만남길)에서 제12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 출품작 전시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목장형 자연치즈를 만드는 국내 낙농가를 중심으로 자연치즈의 품질 향상과 소비 확대를 위해 2006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고다, 체다, 베르크, 까망베르 치즈 등 전국 낙농가에서 출품한 자연치즈 70여 점을 비롯해 총 200여개 치즈가 전시된다. 또한 신선치즈(스트링, 크라, 할로미)와 숙성치즈(고다, 체다, 킬터) 시식과 함께 소비자 현장 선호도 평가를 진행한다.

축산물이용과 정성근 과장은 "이번 전시행사가 자연치즈의 품질향상과 국내산 유제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조기자·fox2drink@

어린이 생활안전 세상 만들기 '선도'

소비자원,포스터 공모작 배포

한국소비자원은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을 안전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 연령층 안전사고 중 매년 30%를 차지하고 있

/박세린기자·iceblue@

전북농관원 '쌀직불제 버' 잔류농약 조사...2건 부적합 판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2017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대상 372개 필지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잔류농약 조사를 완료했다.

전북농관원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 농지의 변동직불금 지급요건 확인 및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매년 잔류농약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370건은 적합, 2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 농산물(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기간까지 해당 필지 농산물의 출하를 연기토록 조치했다./황성조기자·fox2drink@

한눈에 보는 생활경제 TIP - 유통가세일 소식



롯데백화점 전주점이 스위브의 다운통패딩 출시 기념 '스위브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 첫째 주, 도내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할인 행사를 준비했을까.

'스위브 팝업스토어' 운영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는 스위브(SWIB)의 다운통패딩 출시를 기념한 '스위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특히 마데호른 G패딩은 2013년 런칭부터 지난해까지 4번의 시즌동안 완판 수준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한 스위브의 대표 아이템.

이번 신상품은 오리털 80%와 오리깃 20%의 다운 비율로 제작됐고, 방수와 투습, 통기, 방풍의 기능성을 모두 갖췄다. 이번 팝업 행사 기간 중 10%+10% 할인은 물론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극세사 전기요 할인 행사

이마트 전주점에서는 '뜨겁고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통해 신일 번아웃 극세사 전기요(삼골/더블)를 8만 9800과 9만 4800원에서 6만 2860원, 6만 6360원까지 각각 싸게 해준다. 노르웨이 Mll 카본은 12만 9000원에서 11만 6100원, 컨벡터 히터는 14만 9000원에서 13만 4100원이다.

러빙홈 체크 플러스 담요(100*140cm/150*200cm)는 5980원과 9980원에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을 위한 필수 아이템' 전으로 데이즈폼, 퍼방한 슬리퍼와 카카오 방한 실내화를 각각 1만 1800원, 1만 3800원에 판매하고, 코끼리 초경량 원터치 보온병(480ml/핑크) 3만 8800원, 행복해 죽통 겸용 도시락은 1만 6900원에 판다.

/박세린기자·iceblue@

2017 배드민턴 꿈나무를 위한 스포츠 재능기부



지난 2일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개최한 '2017 배드민턴 꿈나무를 위한 스포츠 재능기부' 참가 학생들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은행장학재단, 배드민턴 선수 시범경기와 게임 진행 꿈나무들 위한 스포츠 '재능 나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은 2일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전북은행 배드민턴 전용구장인 JB GYM에서 전북은행 배드민턴 선수들과 '2017 배드민턴 꿈나무를 위한 스포츠 재능기부'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고창초등학교, 전주서신초등학교, 김제검산초등학교, 심심여자중학교, 김

제여자중학교, 심심여자고등학교의 배드민턴 선수들과 감독 60여명이 참석해 전북은행 배드민턴 선수들의 시범경기와 자체 교정 등 일대일 원 포인트 레슨과 게임을 실시했다.

김영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은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세린기자·iceblue@

전북중기청, 벤처·창업 주간 기관교류 행사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벤처·창업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2일과 3일 양일간 'Start-up 전북 2017 Universal Pairing'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북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벤처 창업 보육의 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주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와, '전북 시니어기술창업센터', '익산시 시니어기술창업센터' 등 3개 센터와 전북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전북 소상공인희망센터'의 기관교류 네트워킹이다.

이번 행사는 각 센터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기업대표와 전담인력, 지원기관 관계자 등 90여명의 'Scale Up', 'Value-Up'을 위한 내실화 및 내밀화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양승수기자·ssyang0117@